책 속에서 모색하는 교육문제 해결책

입시부정 계기로 독자들 관심 끌어… 원칙과 현실 조화 이뤄야

최근 선보이고 있는 교육관련 저술들은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유감없이 반영한다. 이 가운데 '대학'의 문제를 다룬 일련의 책들은 이전의 교육관련 출판물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대학'만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힌 책들이어서 지금의 '대학의 위기'와 관련시켜 볼 때 귀기울일 만하다.

다시 쏟아지고 있는 교육관련 저술들.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대학입시부정사건'은 새삼 우리의 대학현실과 교육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교육의 문제와 위기에 대한 논란은 놀랍게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곪을 대로 곪은 고질적인 문제이고 그 곪아 있는 교육문제의 맨 위에 위치해 있다 할 대학까지 이제 그 환부를 적나라하게 내보임으로써 큰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학의 위기', '위기의 교육'은 서점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주요 필자로 나서 한차례 봇물을 이루다시피 쏟아져 나왔던 교육문제 진단서들 위에 최근 다시 적잖게 선보이고 있는 교육관련 저술들은 또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유감없이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최근에 나온 관련 저서들은 기왕의 책들, 즉 「교육난국의 해부」(나남), 「한국교육의 새로운 선택」(21세기정책연구회),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천지), 「학교는 왜 가난한가」(우리교육) 등이 교육전반 그 가운데서도 입시교육의 병폐를 세세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김성재 엮음, 92년 8월),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정범모 외, 93년 2월), 「한국의 대학교수」(이성호, 92년 8월), 「대학교육의 갈등」(이성호, 92년 2월),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에드워드 쉴즈, 92년 3월) 등의 최근 저술들은 제목의 일별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 특히 '대학'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 늘고 있으며,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것도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그 위기의 진단과 대안'(「전환기에 선 한국교육」) 등의 부제에서 보여지듯 주장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의 문제를 다룬 일련의 저술들은 이전의 교육관련 출판물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대학'만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힌 책들이어서 지금의 '대학의 위기'와 관련시켜 볼 때 귀기울여 볼 만하다.

'대학'의 문제를 진단한 세권의 책

연세대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가 「大學敎育의 葛藤」(느티나무)에서 연구의 전제로 삼고 있는 오늘의 우리네 대학교육의 현실은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희망으로 삼기에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저자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고 대학을 향한 지탄의 소리가 드높다. 대학이 본래의 특성으로 여겼던 高潔性을 상실하였고, 대학이 책무로 져야 했던 秀越性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학은 '파손된 상아탑'이라 불릴 만큼 깊은 갈등의 늪에서 그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절망적인 진단을 한다.

대학 자체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저자는 오늘의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깊은 갈등의 근원은 대학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교수,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대학 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학과내 교수간의 갈등의 본질과 근원',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의 태도와 갈등', '교수업적평가의 본질과 방법', '대학수업의 부폐현황' 등 모두 3부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의 진상을 지적하는 이 교수의 목소리는 다소 직설적이다.

대학을 지칭하는 '상아탑'이라는 용어가 이미 외부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독존적인 분위기를 풍기듯 사실 일반인들은 치열한 관문으로서 '대학 입시'만 알고 있을 뿐 그 이후 펼쳐지는 대학내의 교육문제나 우리네 대학의 실제 현황이 국제적인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대학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번의 '입시부정'과 같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결코 알기 어려웠던 부분.

이 교수가 지난해 펴낸 「한국의 대학교수」(학지사)는 미국 카네기재단이 실시한 '세계 12개국 대학교수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에 제출한 한국교수들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책자화한 것으로 이에대한 궁금증을 덜어준다. 특히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학술적 연구가 절실하다"는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대학교수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교수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연구활동과 그 업적, 대학행정 참여와 대학 밖의 공공봉사활동, 교수의 국제적 활동과 사회인식 등 8개의 대항목 아래 243개의 문항을 1,211명의 현직교수들에게 질의해 분석했는데, 설문내용이 다소 광범위하고, 연구내용들을 서로 상관지어 밀도있게 분석해 내지 못했다는 저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수들의 특징과 대학의 현황을 국제적 위상 속에서 살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행정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서 대학의 순수한 이념까지 훼손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과 학계주변에는 논문표절을 비롯한 불미스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 학문하는 사람들의 의무와 학문의 윤리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해말 연세대 사회학과 안계춘 교수에 의해 번역 소개된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나남)는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하려는 이들에게 숙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종사하고 있고, 그 길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전달'만이 중요시되고 학자로서의 윤리적·도덕적 훈련은 소홀히 취급돼온 게 아닌가"하는 반성이 에드워드 쉴즈(美시카고大)교수의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라고 말하는 안교수는 "틈틈이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학구생활을 반성해보기도 했다"고 머릿말에서 고백한다.

이 책에서 쉴즈교수는 대학교수를 "유치원선생과는 달리 지식의 전수와 발전에 헌신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선생"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사회기여의 의무와 정치적·평론가적 활동을 통한 정부에 대한 의무 등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학문윤리의 기본적인 요소들, 학문적 기풍을 이어가는 자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카데미즘의 확립을 강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용의 아쉬움

한림대 정범모 총장 외 4명의 연구자가 공동집필한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나남)나 한신대 기독교교육과 김성재 교수 외 여섯 명의 교육학자가 진단한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한울) 연세대 한준상 교수의 「한국교육민주화」(연세대출판부) 등은 한국교육 최대의 '암'이라 일컬어지는 입시와 입시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어 현재의 대학문제가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한국교육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현직교사들이 쓴 교육진단서는 문제제기는 좋으나 너무 미세하게 파고들어 과연 그 구체적인 제안들이 현실에 반영될까 싶은 의문이 들고, 대학교수들의 교육문제 진단은 원칙적인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 탈상황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흠"이라고 지적한다.

——정혜옥 기자